주가	환율	금리
+16.64	-1.50	-0.01
1,422.54 (코스피지수)	934.00원 (원/달러)	4.72%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14.87	(+7.44)
다우(21일)	12,321.59	(+5.05)
나스닥(21일)	2,454.84	(+2.12)
닛케이	15,914.23	(+180.09)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7.46엔	(-0.58)
유로 달러 환율	1.2862달러	(+0.37)
3년만기 회사채	5.07%	(보합)
콜금리	4.47%	(보합)

수출中企 환리스크 대비 소홀

광주·전남업체 올 환변동보험 이용 930억
환율하락 불구 지난해보다 40%나 줄어
수출보험公, 28일 '설명회' 관리방안 등 소개

원·달러와 원·엔 환율 하락으로 원화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리스크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환변동보험 가입 등 환리스크 관리로 환차손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한국수출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93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 원·엔 환율도 100엔당 800원선이 무너지는 등 9년만에 환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환율선으로 원·달러는 940원선, 원·엔은 800원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소 수출업체의 경우 달러당 930원선과 100엔당 790원선인 현재의 환율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달러화와 엔화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쌍둥이 환율하락'은 광주지역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전자 관련 업체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일본기업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22일 현재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이용실적을 보면 올들어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이용액은 9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293억원)에 비해 39%나 줄어들었다. 이는 전국적인 환변동보험 이용액 11조원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광주 하남산단에서 가전제품 부품을 생산하는 H전자는 2002년 10월부터 환변동보험에 가입해 현재까지 15억1천만원의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았으며, 평동공단의 M사도 2003년 5월부터 환차손으로 발생한 손실액 12억3천만원을 환변동보험을 통해 만회했다.

수출보험공사 박재형 부부장은 "현대그룹의 경우 원·달러 환율 900원, 100엔당 원화가치는 760원을 지표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대기업들은 환율하락에 대비하고 있어 피해가 크지 않지만 환변동보험에 들지 않은 중소 수출업체들은 환율하락의 직격탄을 피하기 힘들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환변동보험을 통해 저렴하게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는 오는 28일 오후 3시 광주은행 4층 연수실에서 지역내 중소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환리스크 관리 설명회'를 갖고 내년도 환율전망과 환변동보험 활용을 통한 환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인터넷 뱅킹 전성시대

전자금융 결제 하루 13조…사상 첫 어음·수표 추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망을 이용한 결제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수표·어음 결제규모를 추월했다.

금융서비스전달 수단에서도 인터넷뱅킹이 오프라인에 해당하는 금융사의 창구텔러 서비스를 이미 추월했으며 자금결제액 규모에서 인터넷이 오프라인(장표) 방식인 어음·수표를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자기앞수표와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등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장표방식의 결제 규모는 13조1천15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9%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에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한 결제금액은 하루 평균 13조2천9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0%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어음·수표를 통한 장표방식 결제 규모를 앞질렀다.

어음·수표를 이용한 장표방식 결제는 2000년초에는 일평균 25조원 규모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21조원대로 떨어졌으며 2004년과 2005년에는 일평균 14조원대로 급락한데 이어 올해 3분기에는 13조원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결제는 해당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1년 2분기에 하루 평균 결제규모는 1조6천20억원에 불과했으나 5년반 만에 결제규모가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연합뉴스

배추 등 김치 원재료 수입 급증

올해 김치 무역수지가 처음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배추 등 원재료 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배추 수입량은 3천921t으로 작년 동기의 3.74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배추 수입은 9월까지 급증세를 보이다가 국산 배추값이 떨어지면서 10월 한달간은 104t으로 작년 동월보다 75.4% 줄었다.

김치 재료로 쓰이는 다른 품목의 수입량을 보면 올해 10월까지 고추가 7만19t으로 작년 동기보다 45.5% 늘어난 것을 비롯해 파(4천330t)는 33.7%, 새우젓(1만8천64t)은 20.0%, 무(2천809t)는 35.4%가 각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양파(1만6천881t)는 12.4% 수입량이 줄고 생강(4천758t)은 31.9%, 마늘(2만9천900t)은 12.4%가 각각 감소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못믿을 국가통계…이유 있었다

낡은 표본에 엉터리 자료 입력 기준도 '제각각'
1건당 6.1개 문제점…통계 만족도 부동산 최하위

정부가 공식 승인한 '국가 통계'의 작성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통계 및 주제별 전문가 69명이 참여, 107개 국가승인 통계의 품질을 진단한 결과 모두 641건의 개선 사항이 지적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적 내용별로는 자료 세분화 및 심층분석 부족으로 활용 편리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20%로 가장 많았고, '모집단 및 표본관리 부실'과 '작성지침 등 관련 문서화 미흡'이 각각 8%, 7.5%로 뒤를 이었다.

통계 이용자의 만족도도 5점 만점에 평균 3.5점 수준에 그쳤다. 부문별로는 기업경영 통계의 만족도가 3.9점으로 높은 반면 주택·토지 부문은 3.3점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산업은행이 집계하는 기업재무분석 통계의 모집단 자료는 여전히 지난 99년 통계청이 작성한 광공업 통계조사와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를 사용하고 있어 표본의 대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박건조협회의 선박건조 통계의 경우 모집단이 9개 대형 조선업체로만 구성돼 나머지 64개 영세 조선사의 수주 및 건조량은 항상 빠져있다. 각종 이익단체들의 임금 통계 모집단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의 결정은 기업체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대부분 임금 통계는 단위 사업장 및 사업체를 토대로 산출되는 점,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사업체 근로실태조사 등 비슷한 조사가 같은 업체들을 상대로 중복 실시되는 점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통계 대상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고 각 기관별로 달라 신뢰성과 통계간 교류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하는 200대 주요기업 설비투자 계획조사와 전경련의 기업 시설투자 동향조사는 각각 '설비투자'와 '시설투자'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경기조사나 소비자전망조사 등 경기전망 통계의 경우 기준 문제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부분 경기전망 조사의 경우 현재 시점에 대한 평가는 항상 기준 '100'을 밑돌며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고, 미래 전망의 경우 항상 현재 시점 지표 보다는 높아 경제 주체들의 정확한 경기 인식 변화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전망 조사 지표도 기준 지수를 정해 변동 상황을 보다 알기 쉽게 나타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전망 통계에 계절적 변동 요인을 반영, 조정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10월 무역
7,800만弗 흑자

10월 들어 광주·전남지역이 올해 처음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만)에 따르면 10월중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8.8% 증가한 24억7천500만달러, 수입은 4.8% 증가한 23억9천600만달러로 나타나 7천8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이는 수입이 크게 줄어든 반면 광주의 자동차와 반도체·냉장고, 전남의 선박·냉연강판·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영만 지부장은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다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신제품개발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강진특산물 알뜰하게 구입하세요 '청자골 강진군 향토 특산물전'이 22일 광주신세계 식품매장에서 개막돼 오는 26일까지 계속된다. 광주신세계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강진군의 고품질 농·축·수산 특산물 200여 품목이 선봬 시중가보다 10~30% 싼 가격에 판매되고, 매출액의 1%는 강진군 인재육성기금으로 입금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中-스테인리스· 인도 -제철소·베트남- 냉연공장
포스코, 글로벌 경영 본궤도

포스코가 22일 중국 최대 공업도시중 하나인 장쑤(江蘇)성 장자강(張家港)에 연산 60만t 규모의 스테인리스 일관제철소를 준공함으로써 글로벌 경영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포스코의 장자강 스테인리스 일관 생산설비 준공은 중국 정부가 경기 과열을 우려, 수 년 전부터 철강업 등에 대한 과잉 중복투자를 억제해오는 가운데서도 공급이 부족한 스테인리스 등 고급 철강제품에 대한 생산설비 증설은 계속 독려해왔기 때문에 시의 적절한 투자로 평가되고 있다.

포스코는 장자강 공장에 최첨단의 친환경, IT를 접목한 공정 프로세스와 에너지 절감형의 기술과 설비를 채택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절약 등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에 부합했다.

포스코는 중국 장자강 일관제철소 준공을 계기로 글로벌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가 건설 예정인 인도제철소는 인도 동북부 오리사주내에 약 500만평 규모로 건설되며 1단계로 최첨단 기술인 파이넥스공법을 채택해 2010년까지 슬라브 150만t, 열연제품 250만t 등 연간 총 400만t을 생산하고 최종 생산규모를 1천200만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인도 정부로부터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6억t의 철광석 광권을 확보한데다 지난달에는 인도 정부로부터 제철소 부지 전체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승인받았다.

최근 확정한 베트남 냉연공정 건설 프로젝트는 지난 18일 베트남 정부로부터 연산 150만t 규모의 냉연공장과 연산 300만t 규모의 열연공장 신설 등 201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진행될 전 프로젝트에 대해 일괄 투자 승인을 획득했다.

멕시코 자동차강판공장은 지난 9월 주정부와 MOU를 체결했으며 내년 10월 착공해 2009년 6월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캐리어' 광주에 영원히 남는다

광주공장 찾은 던컨 亞·太사장

"캐리어는 영원히 광주 제조업체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외 이전설 등 루머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22일 광주 하남산단내 캐리어(주)에서 만난 던컨 길리스(43) 캐리어 아시아 태평양 오퍼레이션 사장은 중국 이전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캐리어는 지난 9월 경영난으로 350여명의 직원을 명예퇴직 형식을 빌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기존 콤프레서 라인을 퇴출, 무성한 루머를 만들어낸 바 있다.

던컨 사장은 "고객의 새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600만달러를 투자, 내년 3월 고효율·최절전 기능을 갖춘 혁신적인 디자인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 신기술 및 제품분야 프로젝트를 가동해 고객은 물론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0년 대우지분을 100% 확보한 캐리어는 현재 600여명의 직원이 30여종의 에어컨을 생산, 연간 3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15~20%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日기업 공격경영, 한국기업 '위협'

경영체질 개선 힘입어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

최근 실적이 크게 호전된 일본 기업이 공격경영에 나서고 있어 한국 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일본기업의 공격경영 : 현상과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기업은 지난해 그 전해보다 16.7% 늘어난 50조4천억엔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호조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 기업의 최근 실적 호전은 단순히 경기 상승이나 엔저 현상 때문이 아니라 지난 10여년간의 구조개혁과 체질강화 결과로 특히 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기업들이 실적호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본 기업은 최근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설비투자에 나서고 있고 지난달 도시바의 미국 웨스팅하우스 인수와 같이 해외 인수합병이나 미래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 수비적 경영에서 공격적 경영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기업이 공격 경영으로 전환한 데는 버블 붕괴 이후 설비, 부채, 인력 과잉이 모두 해소됐고 최근 실적과 매출, 이익이 크게 향상돼 투자재원을 확보한데다 최고경영자(CEO)의 외부영입이나 세대교체로 구조조정과 공격경영 기조가 강화된 점이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기업끼리 합병·통폐합이 활발히 진행돼 업종내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끼리 치열히 경쟁하는 구도에서 소수정예 기업이 경쟁하는 구도로 시장구도가 전환된 점도 일본기업의 공격경영 전환에 한 몫을 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인수 추진위

대정부 활동 전개키로

광주은행인수추진위원회는 21일 광주상의 3층 회의실에서 추진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차 광주은행인수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은행 인수 추진관련 향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들은 광주은행 인수추진의 책임과 권한을 추진위원장인 마형렬 광주상의 회장에게 일임키로 의결했다.

이어 추진위는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정부기관을 방문해 우리은행 분리매각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대정부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지역자본에 의한 광주은행 민영화 지지 동의서를 받아 정부에 건의할 때 첨부하기로 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여행객 '짝퉁' 반입도 본격 단속

관세청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부터 여행객 휴대나 국제소포 등을 통해 소량 반입되는 '짝퉁' 물품에 대한 통관단계의 단속이 본격화된다.

관세청은 2008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한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화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환적 화물과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등에 대해서도 지재권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세관의 조사부서에 지재권 단속 전담과를 신설하고 인터넷 주문을 통한 물품 반입과 관련된 정보수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영 통관지원국장은 "현재는 개인용도 소량 반입의 경우는 국경조치의 예외가 허용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물품수량 등 허용 기준을 구체화해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청은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지재권 위반 품목 유형으로 현행 상표권 이외에 저작권, 디자인권 등을 추가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특허권 위반품목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표권 보호 신고 등 업무를 맡는 지재권보호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우수 협조 상표권자 인증제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